

이철우 “APEC 정상회의, 최적의 요건 갖춘 ‘경주’에서”

(경북도지사)

한덕수 총리 만나 협조 요청
‘비전 2040’ 포용적 성장 실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현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관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자부하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보다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 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개최지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간 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 중소 규모 도시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과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건의와 더불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석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포항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등도 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아울러 청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흥군 ‘창조적마을 만들기’ 준공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28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양 읍치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주민 복지·교육 서비스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공동체 활력 도모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풍양면민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28일 청기면 상청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종합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2010년 3월 영양읍 무장리에서 최초 시행 이후 매년 3~4회 정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만에 재개했다.

초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2%(‘23년 2월 말 기준)에 달하는 지역특성상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및 상담’, 자원봉사센터의 ‘이불세탁’ 서비스는 매우 인기가 높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안동시, ‘노지 디지털농업’ 선도주자 각광 받아 ‘들썩’

국내 최초 시범사업 통해 구축
지자체·기관에서 견학방문 요청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노지 디지털농업 선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생산단지와 데이터관제센터에 대해 여러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노지 디지털농업 분야 견학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농업 선진 시스템과 AI 의사결정시스템이 도입된 미래과원과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저장·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제센터에 대한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월 평균 10개 내외의 기관에서 안동시를 방문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245억원 규모의 안동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원과 수원 61.5ha에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시범사업의 관리와 데이터 기반 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은 스마트생산단지에 구축된 환경센서와 모니터링 장치 등 다양한 수집장비를 활용하여 기상, 토양, 생육, 병해충 정보 등 영농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그 결과값을 61개 사업 참여 농가에 제공한다.

농가에는 관수·관비 자동 제어, 병해충 예찰 및 발생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만을 활용하여 영농정보 활용 및 제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농업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지난 2월 열린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식.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굳힌다

10년간 8배 이상 대폭 성장 전망

포항시가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대규모 이차전지 기업을 집적시켜 대한민국 최고 이차전지 선도도시이자 특화단지 최적의 도시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초고속 성장해 2020년 461억 달러(한화 약 58조 7000억 원)에서 2030년 3517억 달러 규모(한화 약 449조 1000억 원)로 10년간 8배 이상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와 중국의 의존도 탈피가 각

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연구인프라와 함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선도기업 집적으로 원료부터 전구체, 양·음극재 등 핵심 소재 양산까지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포항 지정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이차전지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배터리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광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박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광주광역시 E-V투어 문화관광 트렌드 조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과제로 참여했다.

총사업비 58억원(국고보조 20억원, 민간투자 38억원) 규모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월드컵경기장, 우치공원, 공영주차장 등 79곳에 226기의 초고속·급속·완속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전기충전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사업은 광주시가 충전기 설치장소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지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설치규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별도의 투자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민간투자와 국비유치로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산청군, 취약지역 개선에 40억 확보

산청군이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이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산청군은 2019년 오부면 오전지구 개선사업(23억원), 2020년 생초면 노은마을과 생비량면 방화마을(40억원), 2021년 산청읍 척지마을과 단성면 구사마을(35억원), 지난해 산청읍 내정마을(18억원)에 이어 5년 연

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전체 주택 중 70%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대응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돌입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하동군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

하동군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3년도 소규모 스마트팜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옥종면 일원에 7200㎡(약 22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신축(9연동)과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팜 온실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